

# 강북횡단선, '9호선 지옥철' 막으려면... "경전철 아닌 중전철로"

## 서울시

### "출퇴근시간 혼잡 가능성 있지만 '낮시간 손실'에 콤팩트하게 맞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지옥철 9호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고 21일 밝혔다. 등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인 대중교통수단이다.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보다 전동차 크기, 무게, 수용 인원이 적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차가 최대 4량으로 구성돼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김모(34) 씨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뉴타운도 있고



대학들에 환승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정말 많다"며 "조사 좀 정확하게 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철도망계획 노선별 이용자 수'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은 하루에 21만 30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일 이용객이 27만2749명인 1호선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요예측을 해보니 강북횡단선은 1km당 이용객이 1일 8000명 수준으로 나왔다"며 "1만명은 돼야 중전철로 추진한다. 이보

다 낮기 때문에 경전철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지난 2015년 3월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혼잡도가 230%까지 치솟으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는 1년 반만인 2016년 8월 혼잡구간인 가양~신논현 구간만을 운행하는 '셔틀형 급행열차'를 투입했다. 혼잡도는 40% 감소한 190%가 됐다. 160명 정원인 열차 한 량 탑승객이 368명에서 30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열차에 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수요예측을 콤팩트하게 한 것"이라며 "강북순환선은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혼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 수요를 늘려 놓으면 낮에 열차가 비어 손실이 발생한다. 2~4량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호선 열차 혼잡도가 크게 줄지 않자 2017년 12월 6량 열차를 도입했다. 총 4량인 전동차 앞뒤에 각각 1량을 붙여 6량의 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

간을 개통했다. 시는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63%에서 147%로 1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많다면 토목 용역 때 4량 이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철은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잦은 운행 장애로 운영 5년만인 2017년 5월 3676억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총사업비 6752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도 매년 300~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강북순환선 경전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을 최소화하려고 비용대비편익(B/C)이 높게 나온 노선을 선정했다"며 "다른 지방 노선과 경쟁하기 때문에 서울권은 경제성이 높아 예타를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의 비용대비편익은 0.87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마곡산단에 'M-융합캠퍼스' 조성 착수

### 서울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수행 내달 12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모집

서울시가 마곡산단단지내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M-융합캠퍼스' (가칭)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건축물 구축계획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M-융합캠퍼스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M-융합캠퍼스는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할 곳으로 기업·연구소·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

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학융합형 인력을 육성하는 공간이다.

M-융합캠퍼스는 마곡산단단지내 연면적 2만6000㎡, 지하 4층 ~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에는 산·학·연 연구공간과 기술이전센터,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1년 착공해 202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시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해당 업체는 내달 중 서울시와 용역계약을 체결, 6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을 통해 마곡산단단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지식산업 혁신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방안 등 산·학·연 연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청년 채용 기업에 연 2400만원 지원

### 서울시, 93개 청년일자리아사업 선정

서울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총 93개의 청년일자리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일자리아 사업은 지역 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지역정책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지원정책 지원형은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후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기업 및 단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연 2400만원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로 1년동안 2400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식육가공업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마장축



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등이 있다.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은 창업공간을 포함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지원한다.

민간취업 연계형은 공공과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일 경험과 다양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1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청년 채용기업에 1인당 최대 연 2500만원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서소문공원 '역사문화공간' 변신

###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소문공원이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의주2가 16-2일대 서소문공원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상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수요가 감소해 이용이 저조한 서소문공원 주차장(지하 1만 7249㎡)이 사라진다. 시는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에 전시 공간과 집회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소문공원은 조선시대 형장(처형장)으로써 세계 최대 순교성인을 배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담은 서소문역사공원이 조성돼 한국 성지순례길 및 조선 후기 역사성 회복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부연 미세먼지 속 서울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µg/m³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립뉴스

# 인천시 노인분야 예산 26% 늘려 9277억

인천시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진흥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892억원(26%)이 늘어난 9277억원으로 증액해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노인일자리아 급여현실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해 4월부터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소득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7만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신청을 받았으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시는 노인일자리아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아를 전년 목표 대비 5400여개 늘어난 3만2719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유망 中소 110곳 온라인 판로개척 돕는다

### 경기도,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

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내에 개설한 일종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공동 홍보관'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 최대 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